

이슈 현장

중 장자도그룹 진도 양식사업 확대 갈등

진도군 “수산업 발전 기회… 포기 못한다” 전남도 “전북 양식업 차질… 승인 부정적”

중국 장자도어업집단지원공사(이하 장자도)의 대규모 투자는 진도군에는 지역발전의 호기이지만 전북 전국 생산량의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전남도 와 완도·해남 등 전북양식 선발 지방자치단체에게는 위기가 될 수 있다. 이러한 배경은 1100억원(추후 추가 투자 가능)의 중국 투자유치의 결렬됨이 되고 있다. 각자의 이해득실만 고집하기보다는 전남도와 완도군 등이 진도군 과의 협의를 거쳐 장자도의 투자 분야 및 시기 등을 조율하는 과정이 시급하 다는 지적도 있다.

장자도 주력 상품 해삼서 전북 변경 의구심

득실 논란 속 전북·해삼 수출전략 타격 우려

◇장자도 투자 득인가 실인가=전 북양식분야에서 후발주자인 진도군 내 전북양식어민은 모두 120여 가구, 200ha의 면적에 3만 칸의 가두리양 식장을 운영해 450t 정도의 전복을 생산하고 있다. 문제는 시설과 자본 이 영세해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 성과가 될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3 년 미만의 치패·중간패 단계에서 완 도로 헐값에 떠남기고 있다는 것이 다. 완도군 내 기업형 전북양식어민 들이 이 치패와 중간패를 받아 키운 뒤 일본 등으로 수출하고 있다.

7400t의 생산량을 자랑하는 완도와 어께를 나란히 할 수 있다는 청사진 도 들어있다. 하지만 이 같은 진도군의 투자 유치는 완도나 해남 등 타 지 자체와 해당 지역 전북양식어민, 일 본·중국을 상대로 한 수출전략양식 단지를 조성하려는 전남도의 이해와 는 상반되는 것이다. 전북의 경우 수 출 물량이 부족한 실정으로, 진도군 에서 생산되는 치패·중간패를 중국 대기업이 싸쓸이할 경우 그 여파를 클 것이라는 예측이다. 장자도가 투 자를 늘릴 수록 ‘출렁’ 현상도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장자도 숨은 의도는 없는가=장 자도는 세계 17개 지사 260여 개의 대 리점을 통해 미국·일본·유럽 등으로

- ◇장자도그룹 투자일지
- ▲2010.10 진도군과 중국 장자도어업집단지원공사 업무협약 체결
- ▲2011.03 전남도, 진도군 양식어업 10ha 어장이용개발계획 승인
- ▲2011.04 진도군, 진도수협 면허 처분
- ▲2012.01 장자도, 한국주식회사 설립(자본금 1000만 달러)
- ▲2012.06 장자도, 수산물수출산업단지 부지 매입 완료
- ▲2012.10 진도군, 전북 양식 가능한 ‘복합’으로 추가 승인 요청
- ▲2012.11 진도군 수산물수출산업단지 기공식
- ▲2012.12 전남도 불승인
- ▲2013.03 장자도, 수산물수출산업단지 착공(예정)
- ▲2013.03 진도군, 2013년 어장이용개발계획 신청
- ▲2013.04 전남도, 승인 여부 결정

해산물을 수출하는 중국 대기업이다. 지난 2010년 통계에 따르면 장자도의 자본금은 5140억원, 주가가격은 3조 3200억원에 이른다.

전남도는 지난해 11월29일 기공식 전까지 장자도가 진도군에서 생산할 핵심 상품은 해삼이었는데 왜 갑자기 수출 물량이 부족한 실정으로, 진도군 에서 생산되는 치패·중간패를 중국 대기업이 싸쓸이할 경우 그 여파를 클 것이라는 예측이다. 장자도가 투 자를 늘릴 수록 ‘출렁’ 현상도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전남도가 장자도의 투자를 사전에 알고도 진도군에 일본·중국 수출전 략까지로 전북 양식업과 해삼 양식업 을 조성하려한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기공식을 갖기로 결정한 이 후 전북 양식이 가능한 ‘통합’으로 변 경해달라는 것은 선뜻 선의로 받아들이 기 어렵다는 것이다. 애초 전국 전 복생산량의 95% 이상을 차지하고 전 북을 전세계에 수출하고 있는 전남도 를 겨냥한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전남도 수산자원과 김충남 주무관 은 “육상에 시설을 만들었다면 애초 방침에서 면적에 상관 없이 해삼에 가두리 양식장을 운영하겠다고 하는 것은 법에 명시된 사전협의의 피해가 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하지만 진도군은 이 같은 전남도의 부정적인 시각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 다. 낙후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발전 의 계기를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는커녕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것이다.

진도군 수산자원과 황규용 양식산 업담당은 “장자도 측은 10ha에 3000 칸 정도의 가두리양식장을 진도수협 으로부터 임대받아 상품성이 높아질 때까지 보관하겠다는 것”이라며 “편 법이라고 할 수 없으며 이는 전남도 가 추진하는 양식업과 전남 수산물 이미지 제고, 진도군의 발전 등에 모 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진도=박현영기자 hypark@



차와 사찰음식

강진군 도암면 백련사(주지 여연)가 음력 설날 보름을 맞아 마련한 ‘차(茶)와 사찰음식’ 전시회가 26일과 27일 이틀간 열린 가운데 관람객들이 만경루(萬景樓)에 전시된 음식들을 살펴보고 있다. (강진군 제공)

전국 첫 곤충주식회사 뜬다

17개 사육농가 출자 전남녹색곤충(주) 내일 출범

장수풍뎅이·누에 등 대량 사육·산업화 촉진 기대

진남에서 장수풍뎅이, 누에 등 곤충을 산업화하기 위해 주식회사가 처음으로 설립된다.

전남도는 29일 전남생물방제센터에서 곤충 사육농가(17농가)가 직접 출자한 ‘전남녹색곤충 주식회사’ 출범식을 한다고 밝혔다.

출범식과 함께 전남도, 곡성군, 순천대, 전남생물산업진흥재단, 녹색곤충연구 등 5개 기관이 곤충상 품개발 연구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곤충산업 발전방안 심포 지엄을 연다.

곤충은 성장 잠재력이 있는 미래 축산농가 소득원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학습용, 애완동물 먹이용, 행사 용, 환경정화용, 사료용, 천적용 등

으로 활용되고 있다. 현재 국내 생산액은 2000억원 수준이며, 2020년에는 7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남도는 그동안 도내 곤충농가, 곤충잡업연구소, 생물방제센터, 한국유용곤충연구소 등과 7차례 간담회 등을 열고 추진위를 구성하는 등 곤충주식회사 설립을 추진해왔다. 지난 8일에는 마지막 절차인 법인등기를 마쳤다.

전남도와 농가는 곤충을 돈이 되는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2016년까지 5개 분야, 15개 사업에 319억원을 투자하는 ‘전남 곤충산업화 5개년 계획’을 마련했다.

곤충주식회사는 농가 조직화, 곤충의 생산기술 보급, 수요처 발

굴 등 곤충산업을 육성하는 역할을 맡는다.

곤충주식회사가 출범함에 따라 사육농가 확보, 체계화된 생산, 품종 개발, 안정된 소비기반 확보 등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도는 앞으로 곤충 농가 사육시설 현대화사업을 비롯해 곤충 대량사육, 산업화 기술개발, 독(毒)을 이용한 바이오산업화 연구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남에는 56농가가 곤충을 사육, 전국 사육농가의 21%를 차지하고 있으며 생산액은 42억원에 이른다.

전남도 관계자는 “사료 등 기능성 분야 산업화 촉진을 위해 주식회사 운영이 안정되도록 모든 행정력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주식회사 설립이 곤충 농가 활용, 항생제 대체제 개발 등 산업화 촉진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필수기자 bungy@



진도군이 지난 2010년 중국 장자도어업집단지원공사로부터 1100억원의 투자 유치에 성공해 조성하기로 한 진도군 군내면 나리 일대 16만5000㎡의 수산물수출산업단지 부지. 지난해 11월29일 이 자리에서 기공식까지 했으나, 대규모 중국 자본에 의한 전북 가두리 양식장 운영 문제를 둘러싸고 전남도, 완도군, 지역 전북양식어민 등의 반발로 인해 착공이 차질피일 미뤄지고 있다.

/진도=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강진에 귀농인 협동조합 탄생

농업인 등 50여명 '다올협동조합' 창립총회

강진군의 최초 귀농인 협동조합인 ‘다올협동조합(이하 다올)’이 탄생했다.

27일 강진군에 따르면 지난 24일 강진군농업기술센터에서 ‘다올’ 발기인과 농업인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총회를 열었다.

창립총회에서 ‘다올’을 이끌어 갈 이사회 임원으로 이사장에 조병국씨, 이사에 이숙자·김정곤·여종태·권미연·민대기·김성룡씨 등을 선출했다.

29일 전남도에 협동조합 설립을 신고하고 신고필증을 교부받아 법인등기를 마치고 2월부터 정식 협동조합으로 활동을 시작하게 된다.

‘다올’은 협동조합법 제정 이후 강진군에서 농업인들이 세운 첫 협동조합으로 농촌문화를 담을 수 있는 복합판매장, 농산물 가공 사업단, 공동영농경작단,

생태주거복지사업단, 생활정자사업단 등을 조직해 활동할 계획이다.

조병국 이사장은 “누구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다올협동조합은 조합원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체로 이끌어 나갈 방침이다”며 “공동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필요와 욕구 충족을 위해 자발적으로 모인 사람들이 결성한 자율적 단체라는 취지에 따라 외국 유명 협동조합을 역할모델로 삼아 150년 이상 유지·발전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 봉사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강진군은 농촌사회에 새로운 변화를 꿈꾸며 귀농·귀촌 사업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어려움을 겪는 농촌사회에 ‘다올’이 새로운 변화와 활력이 되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진=남철희기자 chou@

진도군 민속문화예술 특구 추진

진도군이 민속문화예술 특구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군은 민속문화예술 특구 지정을 위한 계획안 공고에 28일 군민 공청회를 연다. 특구 지정 대상지는 진도를 아리랑 거리, 향토문화회관, 진돗개 테마 파크, 운림산방 일원이다.

특구로 지정되면 진도 민속문화의 클러스터 거점화, 진도 아리랑 글로벌 프런티어 사업, 민속문화 공감 프

로젝트 사업 추진 등을 위한 규제 완화 특례를 적용받는다. 진도는 가장 한국적인 문화예술자원을 원형 그대로 잘 보존, 계승 발전시키는 예향의 고장으로 널리 알려졌다.

군은 소중한 민속문화예술 자원을 다룬 고장보다 많이 보유하고 있지만 국 가로부터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특구 지정을 추진하게 됐다. /진도=박현영기자 hypark@

보성교육청, 책을 통한 가족 소통의 장 마련

보성교육지원청(교육장 명선옥) Wee센터는 겨울방학을 맞아 ‘가족과 함께하는 책을 통한 정서 치유·마음의 힘 키우기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매주 목·금요일 오전 10시부터 11시30분까지 4주 동안 진행되는 이번 프로그램에는 조순 가정,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저소득층가정 등 사회 소외계층 및 엄마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가정 등 15가족 32명이 참여

해 가족간 소통의 장을 넓혀갈 예정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책을 통해 서로 마음을 나누고 놀이 활동을 하면서 가족 간 소통의 힘을 키워주기 위해 마련됐다.

엄마와 함께 참가한 서재홍(보성남초 1학년) 어린이는 “오기를 정말 잘했다. 엄마랑 함께 비밀노트를 만들었는데 Eltern 집에 가서 비밀이야기를 쓰고 싶다”며 웃음꽃을 활짝 피였다. /보성=김용백기자 kyb@

신안 팔구포 해역 도립공원 지정되나

도, 주민공청회…이달 중 타당성조사

다이아몬드 제도도 유명한 신안군 팔구포 해역 일대가 도립공원(道立公園)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27일 전남도에 따르면 29일 신안군 청 회의실에서 도립공원 추가 지정을 위한 주민공청회를 열기로 했다. 추가 지정이 추진되는 곳은 신안 비금과 도초, 옥도 등 이른바 팔구포(八口浦) 해역 일대로 대상 면적은 82km다.

군은 소중한 민속문화예술 자원을 다룬 고장보다 많이 보유하고 있지만 국가로부터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특구 지정을 추진하게 됐다. /진도=박현영기자 hypark@

설치돼 있는 등 군사요충지 역할을 하기도 했다.

또 기존에 지정된 신안 증도, 압해갯벌(12.8km)은 197km로 면적을 크게 확대할 계획이다.

신안군은 1004개(천사) 섬이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이뤄져 있는 등 천혜의 아름다움을 지닌 지역이다.

전남도는 신안지역 갯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체계적인 보전, 이용을 위해 갯벌도립공원 지정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받을 계획이다. 신안군은 지난 2011년 8월 팔구포 해역 도립공원 지정을 전남도에 신청

했으며 이달 중 타당성 조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앞으로 추가 지정을 위한 관계 기관 협의와 지정·고시, 환경부, 국토해양부와 협의, 도립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전남도는 또 청정 갯벌로 유명한 고흥, 발교 일대, 강진만 갯벌 등에 대한 도립공원 지정을 위한 타당성 조사도 할 계획이다.

광주와 전남지역은 지리산과 다도해(해상), 월출산, 울해 신규 지정된 무등산 등 국립공원 4곳과 조계산, 두륜산, 팔영산, 천관산, 신안 증도와 무안갯벌 등 6곳의 도립공원이 지정, 운영중이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여수 GS칼텍스 ‘재능나눔’ 나선다

‘IT전문인력 양성 과정’ 개강…지역 청년실업 해소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GS칼텍스(대표 허진수 부회장)가 지역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재능나눔 활동에 나섰다. GS칼텍스는 지난 24일 IT전문 계열사인 GS ITM과 함께 여수시 공화동 여수 IT 교육센터에서 ‘지역 IT전문인력 양성교육 과정’을 개강했다고 밝혔다.(사진)

이번 교육과정은 GS칼텍스가 IT교육을 받기 위해 타지역으로 떠나는 여수 지역 청년들의 이탈을 막고, 현장에 곧바로 투입할 수 있는 IT 전문

인력을 양성해 지역 청년실업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마련됐다.

교육생은 고졸 이상의 미취업자 중 여수 지역 거주자를 중심으로 서류전형과 면접을 거쳐 총 14명이 선발됐다.

교육은 하루 8시간씩 12주 동안 진행되며, 현장 중심의 맞춤형 교육을 통해 IT 분야에 곧바로 취업할 수 있는 실무 능력을 키우게 된다. GS칼텍스 김희선 상무는 “이번 과정은 1회성이 아닌 지역 청년들의 실



업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한 GS칼텍스의 재능기부”라며 “향후 교육성과를 토대로 교육인원과 교육과정 등을 확대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여수=김정희기자 chkim@